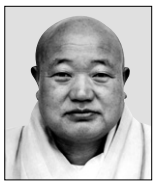


일 주 문



신라소리축제 에일레전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10월 12일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에서 '신라 소리축제 2012 에일레전'을 개최한다. (054)746-1476



제5회 선운문화제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9월 22일 고창 선운사 특설무대에서 제5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한다. (063)561-1422



흥련암 성지순례
서울 흥련사 주지 정념 스님은 9월 8일 '정념 스님과 함께하는 낙산사 흥련암 성지순례'를 진행한다. (02)929-6611



제4회 불교기독교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9월 2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불교기독교를 개최한다. (02)732-2183



심리치료스튜디오 모임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운영위원장 미산 스님은 9월부터 매월 첫째 수요일 저녁 7시 상도선원에서 'DBT(다이아렉티컬 행동치료)' 공부를 진행한다.



청소년 우울증 아카데미
명상상담연구원 원장 인경 스님은 9월 8일 서울 불광산사에서 청소년 우울증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02)2232-5364.



분당 산사음악회
분당 전태종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은 9월 16일 오후 7시 경내 야외특설무대에서 '2012 대광사 가을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31)715-3000

장현갑 교수 한국 심리학회 공로상



장현갑 영남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사진)는 8월 24일 열린 한국심리학회 정기총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장 교수는 그간 불교와 심리학, 뇌과학이 서로 어떻게 만나 인간 심리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지난 40여 년 동안 연구했고, 한국형 MBSR 프로그램인 K-MBSR을 개발해 보급에 앞장서왔다.

'마인드플러스 스트레스 대처 연구소' 소장, 한국명상치유학회 명예회장, 한국통합의학회 고문으로도 활동 중인 장 교수는 2001년부터 세계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5개 분야에 걸쳐 11년 연속 등재된 바 있다.

저서로 <이완, 명상법>, <마음챙김 명상 108가지 물음>, <마음 vs 뇌>와 역서로 <붓다 브레인>,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김미옥 공역, 2012) 등이 있다. 신종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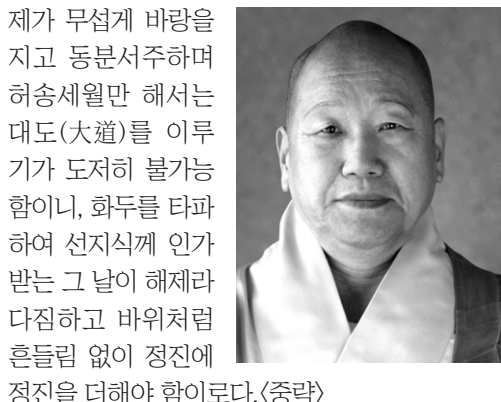
운문雲門의 항상철가恒常鐵枷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고경본무진(古鏡本無塵)이나 유인조점탁(唯人造點琢) 이라다. 옛 거울에는 본래 티끌이 없었으나 다만 사람들이 더럽히고 닦고 함을 지음으로다.

인인개개(人人箇箇)가 가지고 있는 옛 거울에는 일점(一點)의 진애(塵埃)도 없었으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공연히 더럽히고 닦기를 그칠 날이 없었으므로. 만약 사람이 있어서 이 뜻을 바로 알 것 같으면, 참구(參究)하는 일을 다 해 마쳐서 억만 년이 다하도록 편안한 진리의 낙(樂)을 누리게 되리라. 부처님의 최고의 진리의 법문을 듣고 참선수행(參禪修行)을 하는 것은, 인인개개가 지니고 있는 이 옛 거울을 바로 보기 위함이다.

어느덧 여름 석 달 안거를 마치는 해제일이로다. 석 달 동안 각자 간절한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한결 같이 하였는지 반성해 보아야 함이로다. 대도의 진리를 깨닫고자 수행하는 이가 해



제가 무섭게 바람을 지고 동분서주하며 허송세월만 해서는 대도(大道)를 이루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니, 화두를 타파하여 선지식게 인가 받는 그 날이 해제라 다짐하고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정진에 정진을 더해야 함이로다. <종략>

부처님의 최고의 견성법(見性法)은 다견생에 만나기 어려운 것이니, 선지식의 바른 법문을 온전히 받아들여 간절한 일념에서 빼골에 사무치는 화두를 참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대중, 필경(畢竟)에 한 마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하천벽해(紅霞穿碧海) 요 백일요수미(白日繞須彌) 로다.

수행의 요체는 청정진심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悟理本來無異 覺後誰晚誰早 法界量同太虛 衆生智心自小



수행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타남이다 하는 소견부터 내려 놓아야 합니다. 역대조사가 이치를 관해서 깨달은 뒤 바로 '본래 다름이 없구나.' 라는 말을 했습니다. 평등자성의 본상에서 보면 어떤 것도 차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소영명한 성품이 이리하건만 어리석은 중생은 스스로를 구속하고 집착해 같으니 다르니 하는 분별을 해 됩니다. 수행의 요체는 자신의 청정진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서 부처를 이루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종략>

부처님과 역대조사가 깨달은 이치는 그 분들의 몫이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스스로 맛을 보아야 차가운지 더운지 알 수 있듯이 부단한 정진을 통해서 얻은 것만이 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生也幻兮死也幻 死生元是一虛幻 伊?了蓬真空 寸步不離登彼岸



“심성 밝히면 세상 절로 밝아져”

인터뷰 - 덕송총림 방장 설정 스님

“다들 공부는 끝났다 합니다. 공부 안된 사람들은 어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스님은 '일찍이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순수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순수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스님입니다. 선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의 맛을 보게 된다면 이것 이외에는 다른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안거 해제를 앞둔 8월 28일, 덕송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만행에 오르는 남자들에게 더 가열찬 공부를 강조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경허 스님의 선행이 전해지고 있는 덕송총림의 수행과 선풍에 대해서는 윤력이 많을 뿐 별다른 것이 없다고 했다. 오로지 화

바위에도 꽃을 심어야 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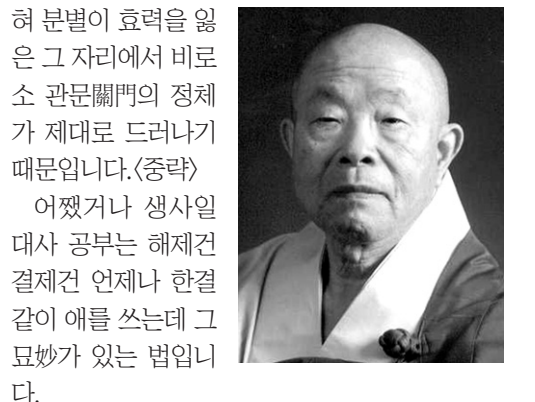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나옹(懶翁) 선사께서 하안거 해제날 법상에서 말씀했습니다. “90일 동안의 금족(禁足)기간이 오늘로 끝났다. 결제대중 모두가 3개월간 본분자리를 찾았건만 그 자취가 전혀 없구나. 이제 노주(奴主)와 등롱(燈籠)도 여기저기 떠나건만, 예전 그대로 돌호랑이(石虎)만 높은 봉우리에 오르려고 몸을 세우고 있구나.”

해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망각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공부인은 해제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석호(石虎) 즉 돌 호랑이처럼 '해제다 결제다' 하는 분별심이 없다면 해제가 곧 결제인 까닭입니다.

항상 살아오던 그 자세 그대로 어떤 분별도 하지 말고 앉았던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석인(石人)처럼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껏 몸을 움직이며 제대로 춤을 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動)과 부동(不動)의 길이 완전히 막



혀 분별이 효력을 잃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관문(關門)의 정체가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종략> 어쨌거나 생사일대사 공부는 해제건 결제건 언제나 한결 같이 애를 쓰는데 그 묘묘가 있는 법입니다.

목인야반천혜거(木人夜半穿鞋去)더니 석녀천명대모귀(石女天明戴帽歸)로다 만고벽담공계월(萬古碧潭空界月)인데 재삼노욕사유지(再三撻癡癡)로다

망상이 없어야 평상심이 생긴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상략>경전에 통달한 무언이 자기 보다 더 현명한 자는 없는 줄 알고 늘 자만하였는데, 깨침을 얻은 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망상을 하지 말라(莫妄想)”고 했다고 합니다. 흔히 상식이 통하는 곳에 진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스승이신 마조화상이 평상심이 되려면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인 망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무업선사는 황제의 초청에도 병을 핑계로 끝까지 응하지 않는 초연함을 보이셨으며, 임종을 당하여 제자들에게 “일체 경계는 본래 저절로 공적하여 한 법도 얻을 수가 없다. 일체가 공함을 깨달아서 한 가지 법도 생각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마음 쓰는 곳이다”라는 설법을 마치고 가부좌를 한 채로 입적했습니다.

오늘날 수행은 뒤로 하고, 물질적 풍요와 명예, 권력만을 추구하는 소수의 승려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도 깊이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계기로 삼아 수행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色身健康莫貪眼 作務辛勤要向前 到老心田如未淨 菩提種子亦難生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이·취임 대법회



- * 제 12대 총무원장 법인 윤남 취임
* 제 11대 총무원장 법진 도일 이임

귀의 삼보하옵고

백중기도 지절에 용맹 수행정진 하시는 중도스님들의 사암에 불광이 두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대승종 제11대, 제12대 총무원장이.취임식을 봉행하오니 많은 동참으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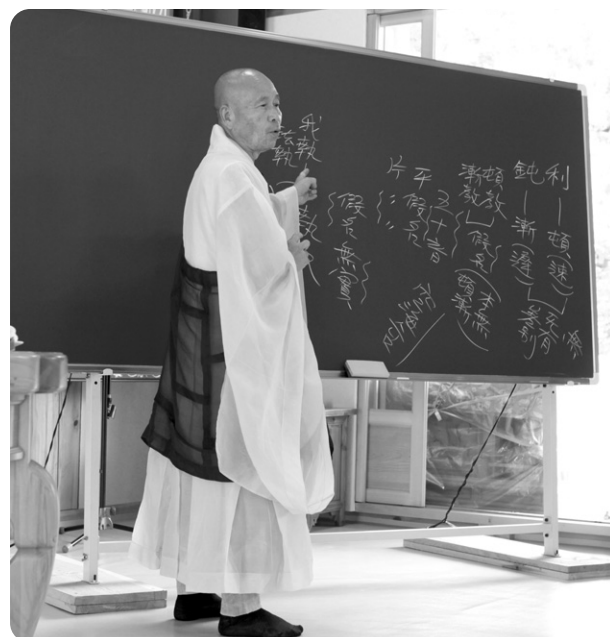
일시 : 불기 2556(2012)년 9월 12일 (음, 7월 26일)수요일 12시
장소 : 경남 창원시 대우백화점 19층 뷔페

대한불교대승종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 1동 산 30-1번지 천연암
■ 전화 055)253-1074, 010-7273-1074 팩스 055)253-1079

각성 큰스님 “서장(書狀)” 고운사 특강

<서장>은 <대혜서(大慧書)>, <대혜서문(大慧書問)>,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 등으로도 불리는 책이다. 대혜종고(大慧宗杲 : 1089~1163) 스님이 문하의 거사와 유학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선의 요지를 설명한 편지글을 모은 것이다. 이 점에서 <서장>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준다. 또 '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한 선 공부의 지침서로서 각성큰스님의 명쾌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12년 9월 10일(월) ~ 9월 14일(금) 오후 2시
●장 소 : 고운사 선 체험관
●특 강 비 : 일십만원정 (₩100,000)
●참가대중 : 사부대중 누구나
●저희 고운사에서는 해제 때마다 특강을 해오는데 “승려연수교육에관한령”에 의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아 교육을 수료하시면 30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문 의 : 종무소 054)833-2324